

“민주화 거목 잃었다”

총성 멈춘 정치권, 이희호 여사 추모

민주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권운동 거목”
 한국당 “민주주의 위해 한 평생 살아온 분”
 바른미래 “DJ 만나 사무친 그리움 풀기를”
 평화당 “국민은 이희호 이름 항상 기억할 것”
 정의당 “고인 신념 평화·통일에 모든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잠시 다름을 멈추고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됐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도 동교동 자택에는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문패가 나란히 걸렸을 텐데 하늘에서 회우하셨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 지도자 이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비판자로서 독재세력과 싸우는 민주화 투쟁의 동지로 매섭고 엄혹한 격정의 세월을

함께 헤쳐오셨다”고 회고했다.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여성 지도자로서 항상 역사의 중심에 서서 끊임없이 더 좋은 세상의 등불을 밝혔던 이 여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퍼스트레이디였다”고 평하면서 “이 여사를 김 전 대통령 곁으로 떠나보내며 이 여사께서 영면하시길 기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은색 옷을 입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정치권에 보여줬다”며 “김 전 대통령 당시 국난 극복과 정치 안정에 큰 힘이 됐다”고 고인을 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부인을 넘어서 든든한 정치 동반자로서의 이 여사의 삶은 국민과 여성에게 큰 울림을 남겨줬다”며 “먼저 서거하신 김 전 대통령 곁으로 가셔서 생애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이 여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면서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여성문제

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으며 가족법 개정 운동, 혼인신고 의무화 등 사회운동에도 헌신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바른미래당 채아배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로 민주화 투사로 평화전도사였던 이 여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서 “평생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가리켜 영면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꿈길에서 아스라이 손을 놓았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사무친 그리움을 풀고 헤어짐 없는 영원한 곳에서 변함없이 이름답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면서 “김 전 대통령이라는 거목을 키우고 꽃피워낸 건 역사였지만 국제적 구명운동과 석방운동 등 그를 지켜낸 건 여사의 존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애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향후 정례 일지에서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고 위해 모든 애우를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고인의 위대한 삶을 계승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 변명을 위한 평화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고인이 있었기에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이 가능했다. 이 여사를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민주화 투사이자 여성운동가로서 기억해야 할 이유”라며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과 낙태죄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여사의 소중한 삶을 올바르게 기리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신 계승을 표방하는 민주평화당은 당 관계자 대다수가 이 여사의 빈소를 찾아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모두는 여사님이 걸었던 여성, 민주주의, 인권, 사랑의 길을 따라 전진하겠다. 이희호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이희호 여사님의 여성 리더적인 면모는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의 반려자를 넘어 독재 속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정치적 동지로 자리하셨다”며 “정치적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김 전 대통령님의 삶에 이희호 여사님이 계셨던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에서 문정인(앞줄 왼쪽부터) 명예 특임 교수,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靑 “정당 해산 청원, 국민 준엄한 평가”…나경원 “매우 유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정당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선거 운동과 다름이 없다. 특히 강 수석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정당 해산 청원’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라고 말했다.

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또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날 22일 동의자 183만9000명으로 마감했다.

뉴스

“강기정 발언, 선거운동과 다름 없어…선거법 위반 소지”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 국회 더 어렵게 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나서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궤멸과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오늘 대통령께서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국회가 어려워

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

윤소하 “6월 국회 소집 불발 시 농성 돌입”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 “민약 오늘까지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의 즉각적인 의사집을 위해 농성에 들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번 주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국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목포에 내려가 시민들을 만났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 열리느냐’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 못 열거든 농성이라도 하라’며 하나 같이 질타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